

## INTISARI

Penelitian ini menelaah novel Cho Namjoo *Kim Jiyeong, Born 1982* menggunakan teori feminisme gelombang kedua. Teori strukturalisasi gender Mansour Fakih (1996), redomestikasi perempuan Betty Friedan (1995), dan feminisme eksistensial Simone de Beauvoir (1976) dijadikan sebagai teori acuan analisis penelitian. Sementara itu, metode historis-faktual digunakan sebagai metodologi utama penelitian. Penelitian ini dilakukan dengan tujuan untuk menguraikan fakta bahwa ketidakadilan gender yang ada di masyarakat bukanlah hal yang tercipta secara natural, melainkan hasil konstruksi budaya patriarki yang disosialisasikan secara kultural. Melalui analisis novel, diketahui bagaimana bentuk strukturalisasi gender melalui cerita tokoh-tokoh di novel yang mengalami marginalisasi, subordinasi, stigmatisasi, kekerasan berbasis gender, dan beban ganda. Selain itu, ditemukan pula upaya redomestikasi wanita melalui citra perempuan ideal yang mengkriminalisasi wanita karier dan berakibat terjadinya krisis identitas perempuan. Novel ini menghadirkan narasi feminisme eksistensial sebagai resolusi untuk memerdekakan perempuan. Hal ini direpresentasikan melalui tokoh-tokoh di novel yang menjadi individu yang mandiri dalam berdialektika memutuskan hidupnya, meski tetap berusaha untuk beradaptasi dengan standar masyarakat yang ada.

**Kata Kunci:** *Feminisme, strukturalisasi, redomestikasi, eksistensialisme, gender, Kim Jiyoung Born 1982*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ho Namjoo's novel entitled *Kim Jiyeong, Born 1982* using the second-wave feminism theory. Mansour Fakih's gender structuralization (1996), Betty Friedan's redomestication of women (1995), and Simone de Beauvoir's existential feminism theory (1976) use as the main references to analyze this novel. As for methodology, this research uses the historical-factual method.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outline the fact that gender inequality in society is not naturally created. Instead, it is socially and culturally constructed under the patriarchal system.

The analysis of the novel indicates that the characters in the novel underwent gender structuralization in the forms of marginalization, subordination, stigmatization, gender-based violence, and double burden workload in the family.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highlights a coordinated effort to re-domesticate women by using images of what an ideal woman should be. This image, then, criminalizes career women that eventually lead to women's identity crisis. This novel sets forth a narrative of existential feminism as a resolution to liberating women. This is represented through the characters in the novel who become independent individuals which means they are able to adapt to the existing social standards while at the same still free from being restrained in their life.

**Keywords:** Feminism, structuralization, redomestication, existentialism, gender, *Kim Jiyoung Born 1982*



## 초록

이 연구는 제2의 페미니즘 이론을 적용하여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된 이론은 만수르 파키의 성별 구조화 이론 (1996), 베틀리 프리던의 여성 재길들이기 이론(1995)과, 시몬 드 보부아르의 실존주의 페미니즘 이론(1976)이다. 한편, 이 소설을 분석하는 데 적용될 연구 방법론은 역사적-사실적 방법이다. 이 연구가 수행된 이유는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세습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라는 것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가 실시되었다. 소설을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등장인물들의 수많은 경험에서 주변화, 예속화, 낙인찍기, 성차별 폭력, 그리고 일과 가사의 이중 부담과 같은 성별 구조화의 예를 발견했다. 게다가, 이 연구는 이상적인 여성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여성들을 재길들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범죄자로 간주되었다. 직업여성 범죄화가 결국 여성 정체성의 위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여성 해방을 위한 결의로서 실존적 페미니즘에 대한 서술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독립한 개인이 되도록 고취한다. 독립한 개인이 되는것은 기존의 사회적 기준에 적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구속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 페미니즘, 성별 구조화, 여성 재길들이기, 실존주의, 젠더, 82년생 김지영**

## 요약

### 1. 서론

이 논문은 조남주의 소설인 <82년생 김지영>에 나타난 제 2의 페미니즘에 대해 논하며 한국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가족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겪는 차별 사례가 많은 이유에서 출발한다. 남성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남성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는 운명인 것처럼, 가족 내의 모든 남성에게 항상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사회에서 여성의 열등함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지배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제 2의 페미니즘을 분석하는 매개체로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 소설이 선정된 이유는 ‘미투’ 운동을 포함한 한국의 페미니즘의 움직임과 다양한 계층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 되도록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2. 이론

이 논문은 제 2의 물결 페미니즘 이론을 적용하여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된 이론은 만수르 파키의 성별 구조화 이론과, 베티 프리던의 여성 재길들이기 이론, 그리고 시몬 드 보부아르의 실존주의 페미니즘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사용된 기술은 질적 접근법을 사용한 문헌 연구 기법이다. 그리고 이 소설을 분석하는데 적용된 연구 방법론은 역사적-사실적 방법이다. 이 소설은 해석학적 관점에서 서술적으로 설명될 결과를 찾기 위해 그 실제 의미에 따라 살펴보았다.

### 3. 결론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제 2의 페미니즘 물결 이론을 적용하여 여성이 성별 구조화와 재길들이기를 통해 사회에서 제 2의 성으로 재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성별

구조화 자체가 주변화, 예측화, 낙인찍기, 성차별 폭력,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으로 나뉘고 여성 재길들이기는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여성 정체성의 위기로 나뉜다.

이 소설에서 여성의 주변화(여성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빈곤해 짐)는 소설 속 여성 캐릭터들이 가족과 사회 전반의 경제적 자원에서 멀어질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김지영의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며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한 것, 김지영이 초등학교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먼저 식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 그리고 김지영을 사퇴하게 만든 남녀 급여 불평등 등에서 여성의 주변화가 묘사된다.

또한 소설에서 성별 예측화(남성의 지위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아짐)는 김지영이 태어났을 때 가족들이 딸이라는 이유로 실망했던 것, 가족에게 무시당했던 김지영의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것, 초등학교 때부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우선시되었던 것, 그리고 여성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었고 하급직만이 허락되었던 것에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은 활동적이 아니라고 여겨서 여학생들이 운동화를 신는 것이 금지됐던 것에서 낙인찍기(여성에게 부정적인 꼬리표를 다는 것)가 보여 진다. 또한 여성이 불운을 몰고 다닌다거나 된장녀, 맘충, 씹다 버린 껌 등으로 불리거나 성폭력의 원인은 여자에게 있다는 등의 낙인찍기도 나타난다.

사회에서의 남성의 지배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와 성차별 폭력이라 불리는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초래한다. 성차별 폭력은 김지영의 어머니가 셋째 딸을 낳아야 했던 것, 항상 학교에서 김지영을 괴롭히는 소년에 대한 관용, 학교와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희롱 등에서 볼 수 있다. 김지영의 친구가 선생님으로부터 손가락 포인터로 괴롭힘을 당했던 경우와 김지영이 일하던 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등에서도 성차별 폭력은 나타난다.

또한 여성이 제 2의 성이 되는 원인은 여성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업무와 가사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영과 시어머니가 밤낮으로 준비해야 하는 추석맞이, 가족을

돌보면서도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책임져야 했던 김지영의 할머니와 어머니,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다양한 일을 맡아서 해야 했던 김지영과 그의 언니, 김지영이 사무실 동료들을 위해 봉사해야 했던 것, 이러한 예를 통해 여성들의 이중 부담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여성의 주변화에서 이중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은 여성의 위치를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위치보다 더 약하고 취약하게 만든다.

한편 여성 재깍들이기 이론에서 여성이 제 2의 성으로 몰리는 이유는 여성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존재한 결과이다.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는 좋은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범죄자로 간주되었다. 김지영이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는 대신에 아이를 낳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것이나 임신을 하고도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질책을 당했던 것에서, 또한 다른 등장인물들인 정신과 의사의 아내와, 정신과 의사의 동료, 그리고 김은실이 경력을 유지하고자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것에서도 여성 재깍들이기가 잘 드러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결국 여성들이 경력을 포기하게 만들면 이는 출산을 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우울증이 생긴 주부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보고 마침내 맞서는 여성들을 보여준다. 이는 제 2의 페미니즘 물결의 일부이기도 한 실존주의 페미니즘의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존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실존적 주체가 되거나 기존의 가부장적 체제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실체가 됨으로써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김지영의 어머니인 오미숙과 김지영의 언니 김은영, 그 외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주변에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낄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반영된다.

#### 4. 결론

조남주의 소설인 <82년생 김지영>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남녀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서사적으로 제시한다. 소설의 내용을 통해 사회에서 여성이 제 2의 성으로 취급 받게 된



것은 여성이 제 2의 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며 남성 중심주의 문화에 의한 성별 구조화와 재길들이기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여성이 실존하는 주체로서 독립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언 중 하나, 즉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식하고 비판적이 되며 타인들의 평가에 의존하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해 왔다. 가부장적 사회의 성차별에 대해 저항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여전히 다양한 계층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들이 요구된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모든 연구와 노력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남녀가 서로 협력하며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